

SEM 22-1 5조 활동후기

5조

강유민 노희애 위은수 이지영

강유민 (2228001)

수학과 관련된 학문, 논문을 이렇게까지 깊게 연구하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아직 학식이 많지 않아 논문 내용을 이해하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논문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조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천히 논문을 이해하려 하니 동아리가 아니었으면 전혀 알지 못했을 법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노희애 (2170030)

과거 읽었던 공학 논문들, 특히 drug delivery 나 biosensor 논문 내에 있는 여러 biological data estimation, fitting math model 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 항상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 이번 SEM 활동을 통해 그를 이룰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 내 관심분야 탐구 과정 중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매우 값진 활동이었다.

위은수 (2128015)

혼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수학과 관련된 새로운 주제를 공부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전공 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직접 이용하면서 수학적 역량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도 느낄 수 있었다. 하나의 주제를 조원들과 역할 분담을 하여 공부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좋은 경험을 이었다.

이지영 (

SEM 학술제라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했다. 단순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발표자료를 만들어 발표하고 내가 얻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식의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나 자료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웠다. 또한, 영어가 많이 약한 편이라 논문을 자연스럽게 필자가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지만, 다른 팀의 발표나 팀원들의 도움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